더 이상은 시간이 없으리라!

(계10:1~11)

1. 내가 또 보니 힘 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2.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 발은 바다를 밟고 왼 발은 땅을 밟고
3.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4.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5.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6. 세세토록 살아 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더 이상은 시간이 없으리라!>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더 이상은 시간이 없으리라.'
이 제목은 본문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옮긴 겁니다.
6절에 "세세토록 살아 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니'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의 단어를 직역하면 '더 이상 시간이 없을 것이다, 시간이 이제는 없을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체하지 아니하리니'라고 해석하는 바람에 본문의 맥락에서는 굉장히 뜻이 달라졌어요.

지체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언뜻 듣기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사건과 더불어 일어나는 심판, 또 그 심판 직전에 있게 되는 일곱 대접의 재앙이 곧바로 일어난다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요한계시록이 주후 96년에 기록이 되었고, 1세기 말에 일곱 교회에 전달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은 헛된 내용을 붙잡고 있었던 게 되지요, 2,000년 동안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리(axiom)를 이야기했어요.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에 흔들림 없이 붙잡고 있어야 되는 기둥 같은 공리들이 세 개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공리 속에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그 세 가지 공리와 연합해서 통합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은 96년에 쓰여 진 이후에는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 땅에 태어날 모든 교인과 성도들에게 다 적용이 되는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 사람이라도, 어느 한 시대라도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존재하도록 해석이 된다면 그 해석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일곱 교회에 보내실 때에는 일곱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교회 안에 접속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체하지 아니하리라'는 이 번역은 옳지 않다고 봐요.
'시간이 더 없다'라고 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시간이 더 없다고 하는 이야기일까요?
96년에 계시록이 쓰여서 이 글을 받은 일곱 교회 사람들에게도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한 것이니까, 아예 일반적으로 말해서 96년에 듣고 100년에 재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이 역사적인 의미에서의 시간(kronos)이 없다고 하는 말이 맞겠지만, 지금 2,000년이 흐른 것을 생각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시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각 시대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으로써, '무엇 무엇을 하는 시간'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종교 개혁시대 때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들이 뭐뭐할 시간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이고, 1,000년에 살던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들이 뭐뭐할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고, 우리에게도 뭐뭐할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고, 3,000년까지도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신다면 2,500년에 사는 사람들도 뭐뭐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뭐하지 못한 채로 죽었다가, 죽은 상태의 인격과 신앙의 상태로 부활해서 재림하

는 예수님을 맞닥뜨려야 된다고 봅니다. 더 이상 뭐뭐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뭐한다는 뭐뭐가 뭐냐?
뭘 할 시간이 없다는 얘기인가를 찾아보는데, 본문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맹세하여 이르되 시간이 더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맹세를 합니까?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를 합니다.
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뭐냐?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라고 합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가 뭐죠?
시간이 더 이상 없다고 했는데, 세세토록 살아 계시다는 하나님에 대한 규정은, 하나님은 시간을 타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월을 타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세월을 타지 않는 분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면,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창조의 이야기가 또 힌트가 되는 거예요.
세월을 타지 않는 분이 하늘과 땅과 바다에 세월을 타는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 살면서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Heaven)이 아니라 공중(Sky)을 말하는 것이죠.
하늘과 바다, 땅, 지구에서 사는 것만이 시간을 타는 것이 아니라, 바다와 하늘과 땅 자체도 시간을 탄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창조의 성격규정입니다. 시간.
'시간을 탄다.'
그 시간을 타는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은 시간을 타지 않으신다.
시간을 타지 않는 하나님과, 시간과 세월을 타고 있는 이 피조의 세계와의 관계, 창조 때의 생긴 이 두 영역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시간을 타지 않는 하나님과, 시간을 타고 있는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우리 인간들이 무엇 무엇을 해야 하는데, 이제 더 이상은 뭐뭐할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뭐뭐라는 것은 지금 상황이 어떤가를 보고, 문맥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보면 짐작할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바로 9장 20-21절에서 여섯째 나팔을 살폈는데 마지막에 어떤 구절이 있었습니까?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섯째 재앙에서 죽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지만, 실상은 첫 번째 나팔부터 여섯 번째 나팔까지 모두가 다 들으라는 나팔이었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재앙들이었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것인데 회개를 하지 않은 거예요.

첫 번째 네 나팔은 피조의 세계인 자연에 내린 재앙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자연세계인 땅의 세계에서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기쁨, 평강, 성취들이 완전히 잿더미처럼 되고, 메뚜기 떼가 갉아먹어서 황폐하게 되는 것 같은 마음을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기쁨과 평강과 성취를 얻으려는 마음을 갖지 못하게 무저갱의 허무함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러면 깨닫고 돌아서야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안 돌아서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섯째 나팔인 황충 재앙과는 다르게 나의 외부에 둔, 이 세상 안에서 두고 있는 기쁨의 근원들, 성취의 내용들, 나로 하여금 살아있게 해주고, 살아야 할 이유를 제공해 준다고 생각하는 생명의 근원들을 실제로 없앰으로써 재앙을 내려 주시고 회개하기를 바라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여섯 나팔의 방법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데도, 회개를 안 한다고 한다면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여섯 나팔은 우리시대에도 똑같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연에 대한 재앙이라든지, 내 마음 속에서 느껴지는 허무함, 내가 아닐지라도 성공한 사람들이 자살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또 마지막의 내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식이 다인 줄 알았는데 자식이 먼저 가는 경우, 사업이 다인 줄 알았는데 사업이 다 망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경우, 이런 것들이 계속 주어지는데, 여기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장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보세요!
여섯 나팔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는데 회개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우상 숭배라든지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 같은 대표적 범죄 행위로 표현되고 있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 갖는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 뭐냐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회개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영적인 의미에서 회개란 무엇이며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데, 오늘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한 천사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천사의 모습이 뭡니까?
이제 회개할 시간이 없어요. 이 여섯 나팔을 통해서 주시는 재앙 속에서도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으면 회개할 시간이 없어요. 다시 말해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죽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를 살든지 회개 안하고 죽은 상태에서 부활해서 예수님 재림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회개 한다는 것은 무엇이고, 회개 안 한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힘센 천사의 모습을 묘사하는 동안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 내용이 영적인 의미에서 무엇이냐는 겁니다.
힘센 천사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 1절에 "힘 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라고 나옵니다.
'구름을 입는다.'
이것은 이 땅, 이 피조의 세계, 시간 바깥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변화산에서도 구름이 빽빽하게 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4장에서 보좌위에 앉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는 소개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 얼굴은 해 같고'
이 말도 하늘에 계신 인자인 아들 하나님의 모습을 표한 할 때에 1장 16절에 "해가 힘 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1장 15절에 "풀무 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라는 말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발을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표현되고 있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모습을 반사하고 있는 그 천사가, 2절에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 발은 바다를 밟고 왼 발은 땅을 밟고"라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천사가 이 땅과 바다를 밟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5감각으로 포착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이렇게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 속에서 시간의 흐름을 타고 사는 우리 인간들이 반드시 시간 바깥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3절에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땅에 발을 딛고 바다에 발을 딛고 있는 이 피조의 세계에 내려온 천사가 사자처럼 울부짖을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시간 속에 살고 있는 동안에 반드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요한이 들었는데 기록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자기 자신 둘만의 관계에서 해당되고 국한되는 이야기들을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반드시 들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창조주가 시간 밖에 계신 분으로 묘사되면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7절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게 무슨 비밀입니까?
우리가 시간을 타고 있는 피조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는 시간과 함께 언젠가는 없어져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과 함께 없어질 세계에 갇혀있고, 이 시간과 함께 없어질 세계 속에서 무엇인가에 마음이 묶여있어서 끝까지 이 세계 안에 마음이 머물고 있으면, 이 세상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세상과 함께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속에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 마음이 이 시간 속에서 가족이나 나라나 사업이나 내 인생의 성취나 이런 것들에 묶여있지 않고, 시간 속에 살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봅니다. 바로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만이 하늘과 내 마음이 줄로 꽁꽁 묶여서, 땅에서 살고 있다가 땅이 다 없어져도 멸망으로 딸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고, 하나님을 보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묶여있는 사람일 경우에만.

6절에 창조얘기가 나오잖아요.
'시간 밖에 계신 분이 시간의 흐름을 타고 있는 세계를 창조하셨다. 그분을 가리켜서 맹세하시기를 더 이상은 시간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창조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계획?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사람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 것이냐? 우리가 영원히 함께할 사람

들을 만들자. 영원히 함께할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인격자여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안에서 서로 서로 사랑해서 일체가 되는 것같이, 그들도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로 만들자. 사랑한다는 것은 아예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그냥 우리 앞에 놔두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육신을 입혀서 시간을 타게 만들고, 그 시간을 타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5감각에 의해서 살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과 공간의 세계 속에서, 5감각을 뛰어넘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우리들에 대한 사랑이 만들어지게 됨으로써 자격을 갖추게 하자.' 이게 바로 창조의 원리이고, 이게 바로 비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뭡니까?
2절의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에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늘이 있고 인간의 인격과 마음의 차원인 공중이 있고 땅이 있어서, 이 땅의 세계가 시간을 타고 흘러가게 되는데, 나 자신의 인생의 시간이 끝나기 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붙잡도록 하는 것입니다. 붙잡고 살다가 죽은 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 시간의 세계가 다 없어져버리고, 신지가 임하기 직전에 부활해서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을 붙잡은 자들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을 붙잡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창조의 계획이고, 이것이 바로 작은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이지요. 이게 복음이고.
이렇게 이야기가 진전되는 상황인 것을 오늘 본문이 중간에 끼워 넣은 것이에요.
7장에 십사만 사천 명에 대한 이야기가, 여섯 번째 인과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을 떼기 전에 나타났던 것처럼, 일곱 번째 나팔 전에 이 이야기가 끼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를 먹으면 9절에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 같이 달리라"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입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장소를 말하는 것이고, 배라는 것은 생리적인 장소를 말합니다.
생리적인 장소라는 것은, 인격과 의지에 상관없이 그냥 소화라는 일이 진행되는 장소입니다.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다'라는 이 말은, 창조의 세계에 사는 동안에 마음이 탈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세월호가 물에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가라앉기 전에 빨리 탈출해야 되는데, 어느 시간이 진행이 되고 나면 더 이상은 시간이 없고 탈출할 수가 없게 됩니다. 탈출 할 수 없는 상

태라고 해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은 것은 아니에요.
이 사건을 비유로 이야기하자면, 지금 이 지구는 세월호입니다. 물속에 가라앉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탈출해야 됩니다.
세월호가 가라앉고 있는 동안에 이 땅, 이 지구, 피조의 세계에 마음을 붙이지 말고 탈출할 것을 여러 가지 이유들, 여섯 나팔을 통해서 가르쳐주시고 계시는데도 계속 마음을 붙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난화 현상으로 기온이 올라 수면이 몇 십 센티로 올라가서 엄청난 파국으로 닥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일단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마음을 붙이지 말라고 하시는구나!'라고 알아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할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 마음을 붙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이러한 모든 것도 극복되고 없어질지도 몰라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산다고 하면,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를 생활화하며 산다고 하면, 이 세상에 자연적인 재난도 없고, 질병도 없거나 줄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냥 이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어 있는 피조의 세계는 없어지고 영원한 세계로 바뀔 거예요. 이런 재앙과 심판이 없이.
그런데 계속 여기에 마음을 붙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토록 가르쳐주셔도, 이렇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여섯 가지 나팔을 통해서 반복해서 주셔도 안 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하늘을 붙잡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이 언젠가 죽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얘는 돌아오지 않겠구나!'하고 결정을 해버리시면,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이제 끝났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 사실을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는 세월호다. 마음이 빨리 빠져 나가야 한다. 지구가 예수님 재림 전까지는 멸망하지 않더라도, 당신이 죽으면 시간이 없는 것이다. 하늘을 붙잡을 기회가 없는 것이고, 하늘을 붙잡을 시간이 더 이상 주어지지 않으니까, 빨리 이 세월호인 이 세상으로부터 마음을 하늘로 옮겨라.'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땅에 내려오셨다가 죽음까지 들어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우리 마음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내신 거니까,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빨리 하늘로 마음을 올려 보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10장이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길이 없다’라는 것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시간과 공간 속에 살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도 언제 올지 모르고, 내가 죽는 순간도 언제 올지 모르는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한 시라도 빨리 지구라는 세월호로부터 우리 마음이 빠져나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구름타고 오시는 하나님, 무지개 같은 하나님, 해 같은 얼굴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일곱 우레처럼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만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